

## 경제 43번 외친 文, 전세 해법 없었다



이데일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정(失政)을 항의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고 적은 피켓을 든 채, 연설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체 수색을 하자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 文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제는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경제'를 43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찾는 무주택자는 매물 풀기와 가격 폭등으로 피가 마르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허망한 다짐만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

### 전세난 부른 임대차법 사과·보완 언급 없이 "기필코 안정시킬 것" 홍남기·김현미, 대책 못내놔... 최재성 靑수석 "집값은 前전경 톱"

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극단의 갈등이 빚어지는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7월 말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꼽는다. 아무 준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 전세난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KB 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51% 올라 2011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 전셋집 매물은 임대차법 개정 직전인 7월 28일 대비 72%나 줄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물론,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 연설 직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도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 마나한 얘기만 나왔다. 이

날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전(前) 전경 톱을 했다. 전세난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세계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했다. 매수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중연·안준용 기자 기사 A3면

## 美유권자 20% "선거 지면 불복"

### 2020 美 대선 D-5

"거리지위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 벌써 양측 지지자들끼리 난투극 美, 대선 뒤가 더 격정 '폭풍전야'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시위에 나서 대규모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20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자의 43%, 트럼프 지지자의 41%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성인 2649명을 조사한 결과다. 또 바이든 지지자의 22%와 트럼프 지지자의 16%는 각각 "우리 편이 지면 시위에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꼴이다.

둘 중 누가 되든 폭력 사태는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역대 미 대선에선 결과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 한쪽으로 기울 경우 대체로 패자가 먼저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선 이런 승복의 전통이 깨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25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트럼프 지지자 100여 명이 집회를 하는데, 때마침 트럼프를 규탄하며 행진해오던 무리가 이를 목격하곤 "인종주의자들 때려잡자"며 공격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발길질을 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현수막을 찢자, 트럼프 지지자들도 반격했다. 이날 5명이 다쳤고 10여 명이 체포됐다. 선거 후 미 전역에서 벌어질 혼란상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이 보는 대선 폭력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우선 트럼프 지지층이 대선일 현장 투표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과 다른 시민들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극우 무장 단체들이 투표소 주변 세 과시를 통해 소수 인종 등 다른 유권자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트럼프는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지지층에게 "투표소에 가서 감시하라"고 해 왔다. 이 때문에 미시간주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A2면에 계속

### '혁신의 거인' 잠들다 이견회 회장 영결식 A8



## 국회서 野원내대표 몸수색한 청와대

### 말뿐인 협치... 한국 정치의 민낯

文, 하고싶은 말만 하고 나가고 野는 특검 요구하며 피켓 시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으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의 사전 간담회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과 만나지 못했다. "말뿐인 협치", "한국 정치의 참담한 민낯"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사전 간담이 예정된 국회의장실에 입장하려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서 몸수색을 받고 간담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보안 수색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사전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랐지만, 여야 고성 속에 1분 30초가량 연단에서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항의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박병석 국회의장 쪽으로 돌아서서 장내를 정리해달라는 사인을 보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말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무시하고 연설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의 석 쪽으로 몸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야당은 국회 본청에 들어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들을 가로질러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주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설 명대로 과거에도 이런 지침은 있었지만, 실제 당 지도부급 인사에 대해 몸수색을 하지는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전 경호 매뉴얼을 사전 안내 없이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슬비·주현연 기자 기사 A4면

### 八面錄

靑 경호실, 국회서 전례 없는 野 원내대표 몸수색. 대화하자 불리놓고 위험 인물 취급하는 게 이 정부의 협치?

추미애 법무, 인사도 감찰도 지휘권도 남발에다 남용. 탈탈 털어 쓰고 나면 남는 건 보통 개발.

伊 검찰, '코로나 通禁 반대 시위, 배후는 마피아.' 이라다 칼, 총 쏘는 '마피아 시위' 등장할까 걱정.

### 알립니다

#### 韓日 국제환경상에 이희성 의장·물가에서 노는 모임



조선훈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한일 국제환경상(The Asian Environmental Awards) 제26회 수상자로 한국의 이희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 일본의 고(故) 아사카가 유키코가 설립한 단체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이 선정됐습니다.

이 의장은 1992년부터 유엔 산하기구인 IPCC에 참여해 왔고, 2018년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한 '지구 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발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가에서 노는 모임'은 1999년부터 일본 규슈 '니카스 갯벌'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갯벌 개발 계획에 대응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 민관 협력을 통한 갯벌 보전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과 일본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2일 오후 5시 조선일보 편집실에서 열립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1만달러를 수여합니다. 기사 A16면